

성령님은 왕이시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성령님은 왕이시다'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편 29 : 10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음이여 여호와께서 영영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시편 29 : 3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은 뇌성을
발하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시편 29 : 4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음이여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시편 29 : 11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우리의 인생살이에는 누구에게나 여러가지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잘 이긴 사람은 승리자가 되고 어려움에서 좌절한 삶은 패배자가 됩니다.

그러면 기독교 역사상 불후의 발자취를 남긴 승리한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공통된 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두가 성령님을 자기 왕으로 모시고 산 것입니다.

바울의 서신을 보면 언제나 처음에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또는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사도다 하는 말은 모두

그리스도가 자신의 왕이라는 고백입니다.

성경 전체가 여호와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왕이시다, 성령님은 왕이시다 하는 선언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면

우리도 그런 위대한 발자취를 남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하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인 성령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보내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이신 성령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스리길 원하십니다.

성령께서 왕으로 우리를 다스릴 때 성령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 분들은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 분들은 성령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계심을 확실히 믿고 있습니까?

성령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릴 때 일어 나는 마음의 증거는 마음의 평안입니다.

반대로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고 환경이 다스릴 때 오는 것은 두려움과 염려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다스리지 않아도 “저는 마음이 아주 편안한데요” 할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환경은 급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모든 것이 잘되는 것 같아 마음이 편해도, 한번 환경이 요동치면 그것은 두려움과 공포로 변합니다.

모든 것이 잘되는 것처럼 보일 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 다음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4 : 35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마가복음 4 : 36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마가복음 4 : 37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마가복음 4 : 38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마가복음 4 : 39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마가복음 4 : 40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마가복음 4 : 41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우리가 읽은 구절은 마태 복음에도, 누가 복음에도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관 복음서 기자가 모두 이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 기사가 내포한 의미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여러 분들은 이 기사에서 무슨 교훈을 얻었습니까?

이 기사를 보면 예수님이 왕이 되신 경우와 왕이 되지 않은 경우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왕이 되지 못한 경우를 살펴 보십시오.

38 절을 보니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바다는 잔잔했고, 순풍에 돛단 돛물살을 헤치며 가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갑판에 나와 시원한 바람과 경치를 즐기며, 자기들끼리 떠들어 댔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뱃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배는 무사히 맞은 편 항구에 곧 도달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파도가 일기 시작하더니 배를 뒤집어 삼킬 것처럼 달려 듭니다.

갈릴리 호수는 수면이 지면보다 낮아 약간의 바람만 불어도 수면위에 진공이 생겨 풍랑이 일어 나기 쉽습니다. 제자들은 혼비백산 했습니다.

평안은 어디로 가고, 파도에 묻혀 죽을 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성령님이 왕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왕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언제나 환경을 바라보고 시험에 굴복합니다. 이런 사람은 환경이 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환경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마음의 평강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다음에 예수님이 왕이 된 경우를 살펴 보십시오.

제자들은 그 때야 예수님을 기억하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일어 나서서 바다를 꾸짖으시니 갈릴리 바다는 이내 고요해졌습니다.

마가복음 4 : 39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잠자던 예수님이 일어 나서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니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잠자던 예수님을 깨웠다고 하는 것은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4 : 40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마가복음 4 : 41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왕이 되시면 믿음이 충만해집니다. 파도가 있으나 파도가 무섭지가 않습니다.

파도가 무섭고, 풍량이 무서우면 그것은 예수님이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환경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왕으로 지배하시면 파도가 두렵지가 않습니다. 풍량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이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있느냐? 근심 걱정을 아직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파도가 몰아치고 풍량이 일지만 마음이 든든하고 두려움이 없으면, 성령님이 그 사람의 왕이 되어 계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끝까지 그 믿음을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여 그 사람은 바람과 파도를 헤치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밀려오는 파도를 보고 두려워벌벌 떨면 그 파도와 풍량은 그 사람을 삼켜 버리고 맙니다.

파도와 홍수가 밀려 오지만 예수님이 와이 되신 경우가 다음 시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시편 29 : 10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음이여 여호와께서 영영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시편 29 : 11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마음에 두려움이 있느냐? 근심 걱정을 아직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파도가 몰아치고 풍량이 일지만 마음이 든든하고 두려움이 없으면, 성령님이 그 사람의 왕이 되어 계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끝까지 그 믿음을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여 그 사람은 바람과 파도를 헤치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밀려오는 파도를 보고 두려워벌벌 떨면 그 파도와 풍량은 그 사람을 삼켜 버리고 맙니다.

이 믿음으로 나가면 배는 무사히 항구에 도착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집에는 비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한 집은 비가 피해 갑니까? 흐린 날은 없습니까? 그러한 집은 불경기가 피해 갑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집에도 비는 같이 오고, 불경기를 통과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어려움이 다가 오나 이제는 차원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집에도 어려움은 오나 이제는 그런 어려움은 삼키려고 달려드는 파도가 아니라 먹고 살찌라는 훈련용 교제가 됩니다. 축복의 전주곡이 됩니다. 한 사람에게는 멸망의 전주곡이고, 다른 사람에게는 축복의 전주곡입니다. 이런 경우는 시험이 temptation 이 아닌 test 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 잘 알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호와가 아낙 자손과 거인은 우리의 밥이라 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이 믿음의 축복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에 들어 갔지만 다른 사람들은 모두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었습니다. 모두에게 시험은 다가왔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환란이 축복의 예고편으로 변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마음 속에서 왕이 되셨는가를 시험해 보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성도의 마음을 왕으로 다스리신 후, 얼마나 성장했는가 시험해 보신 후, 시험에 pass 하면 더큰 축복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창세기 22 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2 : 1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이 구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직접 시험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악으로 빠지도록 시험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나 안하나 알기 위해 시험하신 것입니다. temptation 이 아닌 test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오는 은혜로운 좋은 시험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 복음에는 예수님도 광야에서 빌립을 시험하신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6 : 5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6 : 6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이것은 예수님이 빌립의 믿음의 상태를 질문을 통해 들어 내셔서, 빌립의 믿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 시험하신 것입니다.

.어느날 밤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명령을 하십니다.

창세기 22 : 2 --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산에 데리고 가서 거기서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은 너무 놀라서 어안이 병병했을 것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 나이 100 세에, 사라 나이 99 세에 하나님의 기적으로 얻은 아들입니다.

아마 세상에 이렇게 귀하고 사랑스런 아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아들을 죽여 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손자가 자기 친자식보다 더 사랑스럽다는 말을 들을 땐,
과연 그럴까 의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세가 태어나니깐 그것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모세에게 우유를 먹일 때

아버지는 모세를 가슴에 안고, 어머니는 옆에서 우유 병을 받쳐 들고 우유를 먹입니다.

더운 여름이라 바닥에 내려 놓고 먹이면 좋으련만, 꼭 모세를 안고 우유를 먹입니다.

그리곤 얼굴을 계속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꼭 하시는 말씀이

“예쁘기도 하지” 하셨습니다.

아마 아브라함과 사라에 있어선, 독자 이삭은 이것보다 더 귀하면 더 귀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죽여 나에게 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고통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자기 아내에게 조차 말하지 않고,

나귀 등에 장작 더미를 싣고,

아들 이삭의 손을 붙잡고, 모리아 산으로 향합니다.

3 일을 걸어 모리아 산에 도착했습니다. 3 일 동안 별 생각을 다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것이 이렇게 어려울 바에야 믿지 말고 살자. 그냥 돌아가자.”

신앙을 포기하자는 생각도 했을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가장 긴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렇지만 3 일 동안은 순종의 길입니다.

아브라함은 묵묵히 모리아 산에 도착했습니다.

아침 일찍이 일어나 아들을 데리고 산위에 오르려고 합니다.

이 때 이삭은 묻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장작은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나요?”

아들의 이 질문에 아브라함은 가슴이 찢어질 듯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네가 제물이라는 말은 차마 못하고 믿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창세기 22 : 8 -- 아들이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산 위에 올라가 아브라함은 장작 불을 지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결박하여 제단에 올려 놓고 칼을 빼어 들었습니다.

이삭은 이제 죽을 판입니다.

그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왔습니다.

창세기 22 : 12 --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호칭이 무색하지 않게, 시험에 멋있게 합격하였습니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이유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 귀한 아들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서는 시험해 보신 후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

시험에 pass 함으로 인해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축복의 약속을 받습니다.

창세기 22 : 15 여호와와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창세기 22 : 16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창세기 22 : 17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그대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창세기 22 : 18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

인간으로 견디기 어려운

아브라함의 이런 순종과 믿음이 아브라함 인간에게 나온 것인 줄 아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서 자신을 다스리면 하나님을 위하여, 그 어떤 것도 아까운 것이 없습니다. 돈도 명예도 세상 쾌락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보다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그것을 발견한 후 돌아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것을 샀느니라(마 13:44).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한 수양의 뿔이 숲에 걸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습니다.

여기서 한 수양이 뿔이 걸린 숲(thicket)은 원어로는 가시덤불인데,

예수님의 머리에 씌운 가시 면류관의 가시와 같은 가시입니다.

수양은 예수님을 상징하며, 수양의 뿔이 숲에 걸려 있는 것은 예수님의 머리에 씌워진 가시 면류관을 의미하며, 이삭의 살아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부활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 : 17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히브리서 11 : 18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히브리서 11 : 19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성령님은 아브라함의 마음 안에서 왕으로 계셨습니다.

성령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다스리시니까 그 마음에

초자연적 믿음과, 평강과, 위로가 넘쳐나

성령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것이 바로

성령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왕으로 좌정하신 것이며,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평강으로 다스리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큰 일 작은 일에서 왕이 되시길 원하십니다.

슬픈 일 가운데에서도 우리 마음을 평강으로 다스리시길 원하십니다.

저는 우리 장인이 돌아 가신 후 여러 가지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장인은 위장의 통증을 감소시키는 주사를 맞으시고, 다시 깨어나지 못하고 영원히 하나님께 가셨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셋째 딸인데 우리 집사람을 낳고 난 후 네 째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아들이 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은 우리 집사람이 길을 잘 닦아 놔서 아들을 얻었다고 좋아했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장인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우리 집 사람이 슬픔을 이기지 못할까봐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사람의 얼굴을 보니, 슬픔보다는 마음에 평강이 있었습니다.

저는 참으로 놀라워 물어봤습니다.

집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운전하면서 집에 오는데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딸아 슬퍼하지 마라. 네 아버지는 내 품에서 쉬고 있다. 더 이상 수고도, 더 이상 고통도 없단다. 네 아버지는 내 품에서 편안히 쉬고 있다” 하시더군요.

그 순간 한없는 위로와 마음에 평화가 밀려왔다고 합니다.

“하나님 품에 안겨 편안히 계신데 올 필요가 없지. 산소통을 들고 다니시느라 고생하실 필요도, 숨이 가빠 헐떡 거리실 필요도 없고. 곧 천국에 가면 다시 만나게 될 텐데 --”

집사람은 장례식을 지나는 기간 내내 장모님과 슬퍼하는 다른 형제들을 위로 하는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진짜 성도는 시험 가운데에서도, 성령님이 그 마음을 다스리므로, 하나님의 평강이 그 마음을 주장합니다. 힘과 위로를 얻습니다. 믿음이 환경을 이깁니다. 환경 때문에 쓸어지지 않습니다. 쓸어졌다가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왕이 된 사람만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성령님께서서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왕으로 죄정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시험 중에 왕이 되심으로 영광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노래했습니다.

시편 29 : 10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음이여 여호와께서 영영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시편 29 : 3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뇌성을
발하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시편 29 : 4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음이여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시편 29 : 11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여기서 홍수는 성도를 삼키려고 엄몰해오는 고난과 같습니다.

홍수는 마치 금방 우리를 삼켜 버릴 것같이 달려 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그 홍수를 보면서

홍수위에 좌정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 봅니다.

파도 소리가 사나우면 사나 울수록,

파도 소리보다 더 큰

파도 위에 좌정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 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위에 있도다.

여호와가 홍수 위에 좌정하였음이여

여호와께서 영영토록 왕으로 좌정하셨도다.

여호와가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느 때에라도 굳건히 서서 외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왕이 되실 때

우리는 영원한 승리자입니다. 아멘!

이 글이나 인터넷 방송을 들으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 겠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은 5분만 시간을 내셔서 저의 twitter 나 café 에나, Blog 에 가셔서 소개의 글을 올려 주십시오. 여러분의 조그마한 노력으로 수많은 사람이 읽고 듣게 됩니다.

- Café 명 : 믿음의 향연

<http://cafe.naver.com/Christiansymposium.cafe> 이나

- Blog 명 : 행복의 샘터

<http://blog.daum.net/shk2812> 이나

- * twitter

1. <http://www.twtkr.com> 으로 가셔서 로그인 을 하세요.
2. 바울성서 아카데미(spba0708)에 접속하여 Follower 등록을 하세요
(twitter 안에서검색 box 에 spba0708 을 넣으신후 click 하면 접속됨).
3. 내 twitter 의 home 으로 가서 글을 쓰신 후 tweet 하세요.
4. 제가 twitter 에 올린 글(예, example)

성령님이 인격자라는 것은 우리의 인격을 말씀으로 지배한다는 뜻이고, 우리는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더 알고 싶으면,
<http://www.stpaulbibleacademy.com/3FCFContents.html>

여섯째주를 공부하시길!